

기도 세레머니 가이드라인 만들어 공존해야

조계종 종평위 '자제' 공문 계기로 해외서도 관심

“숫!! 골이에요!! 대한민국이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의 청신호를 밝히는 꿈을 넣었습니다!! 아-그런데서 선수 기도를 올리네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6월 진행될 월드컵에서의 한 장면일 수도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3월 8일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중 개신교 선수들의 ‘기도 세레머니’ 등 종교적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와 개신교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선수 사전교육을 통해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중계방송에서 종교편향 발언을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번 월드컵은 종교색을 벗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11일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골 세레머니를 제재하기 어렵다”며 “FIFA에서도 문자 표출 같이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제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국교회연회는 논평을 통해 “(불교계가) 스포츠 선수까지 관리하려는가”라며 “6월에 있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을 단속하라고 말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해외언론들도 잇따라 보도했다. 특히 AFP는 11일 ‘불교인들이 기도 동작 금지를 요구했다(Buddhists seek ban on prayer gestures)’는 보도를 통해 “한국에서 불교와 개신교는 종종 불편한 관계(luneasy relationship)를 형성해왔다”는 말로 한국사회에서 종교 갈등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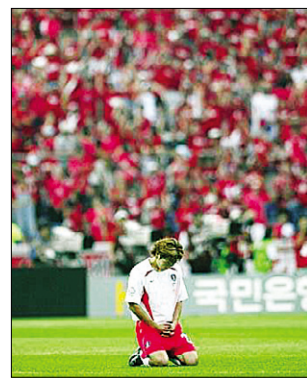
#스포츠 종교편향 어떻게?

축구 등 스포츠에서 세레머니는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하지만 종교적 세레머니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 종교적 세레머니는 기도 등으로 종교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데 문제가 있다. 유럽의 대다수 스포츠 선수들은 위화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독실한 개신교 선수인 브라질의 축구스타 카카는 ‘i belong to Jesus’를 의미하는 양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신앙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세레머니를 펼친다. 이러한 표현방법에는 개인적 종교표출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역사적 교훈이 있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06년 가톨릭의 성호 세레머니가 사회적 물의를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리는 특정종교만의 세레머니는 사회화합을 해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한미담이 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각자의 성숙된 신앙표현이 필요할 때다.

빚었다. 스코틀랜드 축구의 양대 산맥 셀틱과 레인저스가 벌이는 ‘올드 펌 더비’는 축구 외적인 면에서 더 유명하다. 아일랜드에 뿌리를 지닌 셀틱은 스코틀랜드 내의 가톨릭계를 상징하는 반면, 스코틀랜드의 자존심 레인저스는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로부터 독립하며 나타난 민족·종교 대립은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라이벌 관계로 자리매김했다.

2006년 8월, 올드 펌 더비에 나선 셀틱의 폴란드 골키퍼 아투르 보루치는 스코틀랜드 유명인이 됐다. 보루치가 레인저스 팬들 앞에서 성호를 그렸기 때문이다. 보루치에게는 언제나 의례적으로 하던 성호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루치의 행동으로 흥분한 레인저스 팬들이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은 보루치에게 공공질서 위해 혐의를 경고를 내었다. 이

소식에 바티칸 교황청은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들 왜 노골적인가?

종교문제도 전쟁 등을 겪어 온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역사 속에서 종교적 문제가 크게 사회가 갈라진 적이 없다. 이 말바탕에는 종교보다 민족을 강조한 역사성과 민족문화로 자리하며

근대 종교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한 유교와 불교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온건함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정하는 성숙한 종교문화의 발전이 더뎠다는 지적이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은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못한 미성숙

한 신앙행위는 바로 자신의 종교에 대해 스스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며 “한국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나왔을 때, 이를 지적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안식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도 “종교 편향적인 행위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다. 조그

보루치 성호 세레머니에 ‘공공질서 위해’ 경고 축구협, “노골적 아니면 제재 어렵다” 뒷짐

만 것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미연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계에서는 한국 스포츠계의 과격한 종교표현이 엘리트 교육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선수들이 선수 육성과 선발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주축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종교색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결국에는 후보 선수들과 자라나는 유망주들, 그리고 국민들의 신앙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국가대표와 종교 세레머니

다수의 종교 전문가들은 국가대표 선수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세레머니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광서 종교자정연구원 대표는 “공인은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는 포괄적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공인이다.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 대표다. 일정액 국민의 세금을 받고 뛰며 국가를 대표해 경기에 나서는데 어떻게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신앙을 표출해 다른 종교인들에게 위화감과 거부감을 줘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진행 중인 기도세레머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놔두자(49.8%, 2054명)는 의견과 △사실 좀 불편했고 개선하자(49.6%, 2040명)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댓글 등에는 “2006년 월드컵 당시 이천수 선수가 쇼트트랙 오노백선 세레머니로 FIFA로부터 벌금 제재를 받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통쾌했지만 누군가에게 좋지 않으며 그를 고려해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로 공인의 신분이다”(ID: 대의원), “우리나라가 기독교국가도 아닌데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꼭 기도 세레머니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ID: 차한잔) 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개신교 측 조직투표의 의혹도 주장했다.

#종교 표현 제재법은 이견

기도 세레머니 자제에 대중적 공의가 모아지는 가운데 제재 방법에는

기독교와 불교의 온건함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정하는 성숙한 종교문화의 발전이 더뎠다는 지적이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은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행위는 바로 자신의 종교에 대해 스스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며 “한국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나왔을 때, 이를 지적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견이 엇갈렸다. 손안식 위원장과 김용표 교수 등 전문가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규정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광서 종자연 대표,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 등은 각 종교별 자성과 개별적인 의식개선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측 목소리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서 공직자 종교편향 처벌 조항이 누락됐듯, 아직까지 국민 여론도 강제규정에까지는 모아져 있지 않다. 이번 불교계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공문요청에 ‘미흡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이 때문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스포츠인의 종교편향에 대해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는 장미란 선수가 아낌없이 특정종교를 선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김연아 선수(성호를 긋는 모습), 제갈성렬 해설위원이 개인 종교에 대한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계가 이들을 지적하기에 앞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기준이나 공인에 대한 정의 등을 보다

확실히 정리해 대응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불교계가 진행 중인 체육인 포교 등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는 “불교계의 종교편향에 대한 의견 제시 대상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종교편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갖지 못하다보니 문제에 대한 대비책, 전략구상 등도 미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개선할 수 없다. 승가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타 종교의 공격적 포교를 묵과했던 그동안의 불교계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가이드라인 무엇을 담나

종교편향에의 효과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종교편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불교계 종교편향 가이드라인에는 공인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점 제시를 전제로 무종교인에 대한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인 의식개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광서 대표는 “우리의 과제는 이웃 종교, 무종교인에게 중용심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종평위의 골 세레머니 문제제기는 시점이 부적절했고 논리가 부족했다. 지도자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선행한 후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종교간 상호 이해, 공동선인 자비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종교간 대화의 방법이나 이론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종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대화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존 조직인 법률교대책위와 종평위의 인적구성 프로그램 개선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이상언 기자



추비와 묵락

며칠 전, 개신교회 언론에서 ‘벽에 부딪힌 불교국가 선교, 문제는 ‘이론종교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한 신학대 교수가 3월 15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다원사회 속에서 타종교와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는 불교의 기원과 발달사, 기본교리, 세계관 등을 설명하며 불교국가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어느 개신교 학자의 ‘착각’

그 교수는 “개신교가 400여 년 동안 태극에서 선교활동을 펼쳤으나 태극 인구의 1%도 전도하지 못했다”면서 “개신교 승리주의에 입각한 선교는 이미 벽에 부딪혀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불교는 ‘이론적’이어서 현대사회에서 종교이기보다는 ‘철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교는 현실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이 ‘운명’의 굴레 속에서 체념하며 지내는

모습이 있다. 불교의 교리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실행에 있어선 가장 못한 종교”라고 불교를 폄하했다.

이 밖에도 그는 “개신교가 종교 다원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주장에 있어서 타협이 불가하다 그 외에 있어서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교수가 말한 다원화의 지속은 서로의 다양성이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다. 개신교 스스로 편협

된 이론으로 무장한 채 다른 종교와 타협을 불가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서 캄보디아·태국 등 2000년 전통의 불교국가에서 일방적인 선교봉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은 종교다원화라는 단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

손자는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라 했다. 진정으로 불교국가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불교가 이교독락(離苦得樂)의 종교인 것부터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냐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사은품 증정

등록금 145,000
☎ 02) 2004-8216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체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 (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 선금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 입금: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 전화: 061-285-0301,2 | 팩스: 061-285-0304 |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초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서민대학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